

어항의 기능변화와 피셔리나의 개념

옥 영 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어항의 기능변화

어항은 어업의 기초가 되는 수역과 지역사회 중추로서의 육역을 동시에 연결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 어항의 각종 시설들은 어업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도모해 줌으로써 어업활동의 중심고리가 되도록 한다.

또 어항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어촌 거주자들에게는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어항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어항기능시설이 부족

하다는 것과 어항이 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어항이 최근 도시민들에 의한 해양레크리에이션장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의 마찰이 어업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었다.

해양레크리에이션은 도시민들에게 휴양기회를 준다는 점 외에 연안어촌사회에 있어서는 소득기회, 고용창출효과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업활동과 상충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

항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항에 대한 수요변화와 어업과의 마찰

어항에 대한 기능은 크게 피난기능, 보급기능, 유통기능, 지역개발기능, 어촌의 정보보급원으로서의 기능, 어촌공동체의 중심지 기능, 자연과의 조화기능의 7가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7가지 기능은 수산업 및 수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데, 과거에는 피난기능, 유통기능 등 두, 세가지의 기능만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즉 많은 도시민들은 유어와 같은 해양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양레크리에이션은 주로 어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인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형태의 해양관광으로부터 보다 활동적인 해양스포츠로 전환해 간다는 질적인 변화도 중요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의 경우 이런 추세는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유어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더구나 어항과 관련하여서는 유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800여척에 이르고 있으며, 모터보트, 요트 등과 같은 유선수는 1994년 현재 320천척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체 어선척수가 470천척인 것과 비교하면 어선세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바닷가에서 모터보트나 요트와 같은 유선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어선수도 증가하고 있다. 종래 모터보트나 요트는 대도시주변의 해안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지던 해양레크리에이션이었으나 이제 낙도나 벽지 관광지에서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유어선은 바다낚시인구를 충족시키고 어가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1990년대초 시군별로 유어선허가를 시작한 이후 매년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쿠버다이버 또한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대표적인 해양레크리에이션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증가추세는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어촌관광활동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다 활동적인 해양스포츠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촌관광활동 중 자연경관 감상, 해산물 요리, 드라이브, 조용한 휴식, 수산물 채취, 문화유적 탐방, 해양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양스포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대가 더 높았으며, 고학력자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향후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때 해양스포츠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증가는 어업활동과 빈번한 마찰을 야기하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버들과 어촌계원들과의 마찰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나타났다. 또 어항에서 유선이나 유어선의 빈번한 활동도 어업활동을 방해하게 되었다.

유선이나 유어선들이 어항안팎에서 어업자들의 어업활동과 마찰을 야기하는 것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질서한 계류로 어선의 하역작업이나 출어준비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 불법주차와 쓰레기투기 등 어로활동에 불편을 주게 된다. 이는 어로활동뿐만 아니라 어획 관련 활동, 예컨대 어획물의 판매행위, 유통행위 등을 방해하기도 한다.

피셔리의 개념과 개발 실태

이상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유선 및 유어선과 어선 정박지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항만이용의 조정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항에 대한 새로운 개발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피셔리나(fisharina)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 피셔리나는 유선용 시설물의 정박지 및 기타시설지에 대한 명칭이다.

피셔리나는 fish와 arena의 합성어인데 arena는 원래 로마시대의 투기장 또는 극장을 의미하던 것이다. 따라서 피셔리나의 뜻을 굳이 풀이해 본다면 '고기(fish)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피셔리나는 크게 5가지 시설부분으로 구성된다. 외곽시설, 수역시설, 이용조정시설, 편익시설 및 이들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것이다. 이들 각 시설의 구체적인 시설물들을 보면 <표>와 같다.

모든 피셔리나의 개발에는 위에 언급된 것들이 가급적 고려되어야 하나 각 어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이들 시설물 중 외곽시설과 수역시설, 그리고 이용조정시설 중 외부선박들도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어항진입도로와 같은 것은 정부보조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당해어항이 현이나 지역의

<표> 피셔리나의 각종 시설물들

구 분		시 설 물 종 류
외 곽 시 설		방파제, 호안 등
수 역 시 설		항로, 정박지
이용 조정 시설	계류시설	안벽, 잔교, 부잔교, 계선항, 계선부표, 선양장 등
	육상하역시설	요트, 보트를 육상에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크레인, 포크리프트 등
	임시교통시설	도로, 교량 등
	육상보관시설	보트야드, 艇庫 등
	서비스 시설	급유, 급수, 배전, 청소, 조명, 수리, 예인선, 로커, 샤워장, 화장실 등
	안전시설	정보제공시설, 무선, 구호, 표지, 소화시설 등
	부대시설	관리동, 클럽하우스, 주차장, 폐기물처리, 교육훈련, 유원지, 녹지 등
편 익 시 설		쇼핑, 음식, 숙박 등 레크리에이션용시설 등
용 지		상기시설의 부지

중심어항으로 인식된다면 정부보조금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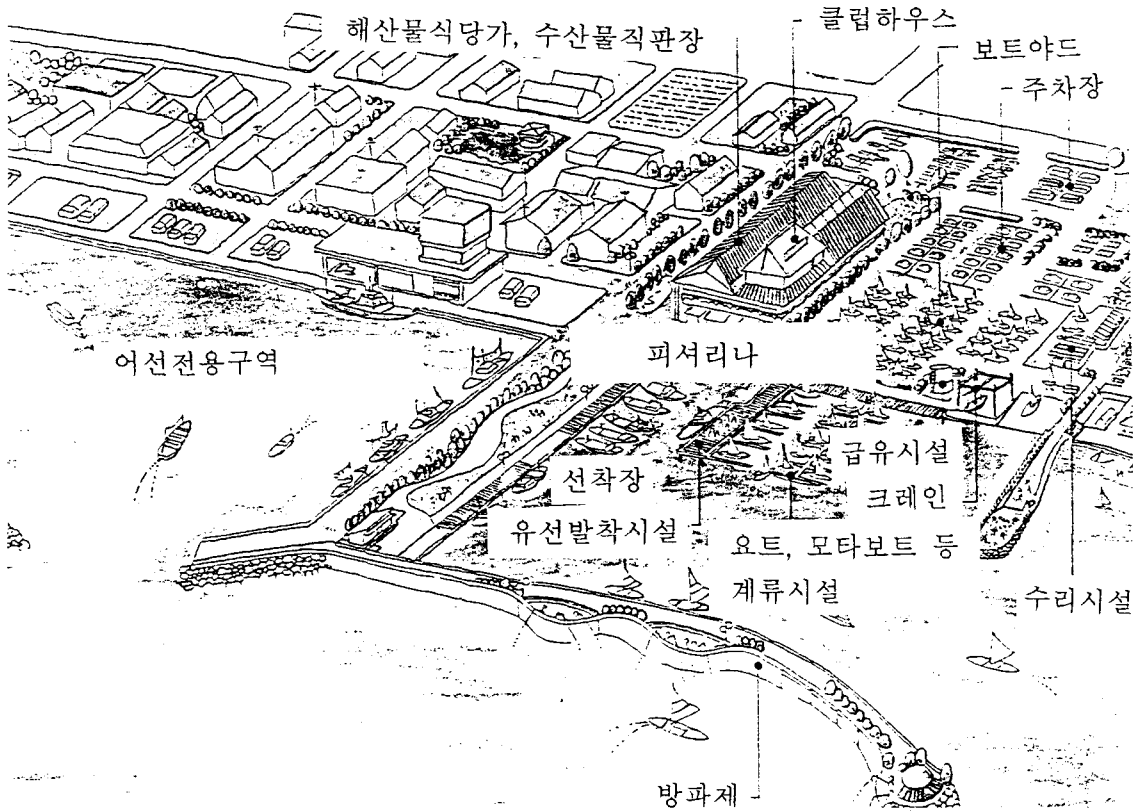
이상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피셔리나의 조감도는 <그림>과 같은데, 그림의 왼쪽이 어선전용구역이고, 피셔리나는 오른쪽이 된다.

1996년 12월 말 현재 피셔리나 건설작업은 25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7개소에서는 이미 건설이 끝나 실제 운영 중에 있다고 한다.

피셔리나의 주된 목적은 어항내에서 어선과 유어선들과의 사이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외에 해양레크리에이션과 어업의 동시개발, 어촌공동체의 활성화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중 해양레크리에이션과 어업의 동시개발은 하나의 장소에 유선 계류를 집중시킴으로써 어항지역의 이용도를 전체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어촌공동체 활성화는 해양레크리에이션의 도입을 통해 고용기회를 늘리고 소득증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림〉 피셔리나의 조감도

맺는 말

우리나라는 최근 어촌어항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70년대 이래 생산중심정책이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한계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발전에 어촌이 따라가지 못해 어촌민들이 느끼는 도시민들과의 소외감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과거의 생산중심에서 정주생활환경, 문화, 교육, 의료

부문 등을 두루 고려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크게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중인 각종 어업 및 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민들의 해양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증가는 도외시되고 있다. 어항은 어항대로, 어촌개발은 어촌개발대로, 어촌관광계획은 어촌관광계획대로 별개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리개발이 문제를 내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어항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있어 피셔리나와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민들에게 해양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오늘날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어촌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